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맞손'

전주시-교육지원청-경찰-민간 공유킴보드 운영업체, 업무협약... 안전관리 강화 등 협력키로

전주시와 교육지원청, 경찰, 민간 공유킴보드 운영업체가 전동킴보드와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하영민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주원 완산경찰서장, 박정환 덕진경찰서장, 3곳의 공유킴보드 업체 대표는 22일 전주시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PM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되고 연령 제한이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낮춰진 데다 원동기 등 면허 미소지자도 탈 수 있게 되는 등 늘어나는 PM 이용 수요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을 통해 시는 자전거도로 추가 개설 및 턱 낮춤, 경계석 조정, 표지판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운영 등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주시교육지원청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교육 등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완산·덕진경찰서는 ▲연령 제한자 이용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단속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지바이크, (주)피유엔피, (주)캐스아시



김승수 전주시장과 하영민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주원 완산경찰서장, 박정환 덕진경찰서장, 3곳의 공유킴보드 업체 대표는 22일 전주시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아 등 민간 공유킴보드 업체는 최고 속도를 20km/h 이하(어린이·노인보호 구역은 최고속도 하향 노력)로 하향 조정하고, 이용자들이 주정차 구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특히 자체 고객센터를 운영해 방치 등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보험에도 의무 가입

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이밖에도 협약기관들은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전동킴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새로

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청각장애인 위한 독서 프로그램 추진

전주 평화도서관, 농아인·일반 시민 대상 연중 진행

전주시가 청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능력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연다.

평화도서관은 농아인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수어와 관련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통역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평화도서관은 통역사로 하여금 도서관 이용을 안내하고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특화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아인을 대상으로 수어 대면 낭독서비스와 농인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수어 대면 낭독서비스의 경우 본인에 원하는 책을 수어로 읽어준 후 간단한 독후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중 원하는 시간을 예약해 참여할 수 있다. 농인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농인들이 함께 모여 책을 읽고 관련된 내용을 토론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책 단어의 뜻 이해하기, 문자도서 수어로 낭독하기, 줄거리 및 주제 파악하기, 토론하고 감상문 쓰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또 책과 관련된 협상을 방문하는 탐방의 시간과 특별한 농인작가의 만남도 이어질 예정이다.

평화도서관은 비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초·중급 수어교실인 '꿈꾸는 손, 수어교실'을 24회에 걸쳐 진행하고,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서는 기초단어를 수화로 배울 수 있는 어린이수어교실도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 프로그램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화도서관 청각장애인 통역사(010-3551-7619)에게 문자나 영상통화로 문의할 수 있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도서관 이용을 꺼려하는 청각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올바른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동참해요'

전주시설공단, 27일 K리그1 개막전 준비 만전

내용물 비우고 행군 뒤 라벨 제거·압축해 뚜껑 달아 배출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동주택 315개 단지를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2022년 고품질 재생페트 재활용량을 1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해 수입에 의존 중인 재생페트를 대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투명 페트병은 의류, 가방, 신발, 화장품 용기 등의 재생원료로 쓰인다. 대상은 공동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을 하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다.

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조기 정착을 위해 분리배출 방법이 담긴 홍보전단지 2만부와 분리함 안내표지

스티커 3,000부를 제작해 공동주택에 배포, 현수막을 통해서도 홍보하기로 했다. 또 버스승강장 내 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도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더불어 다음 달에는 주부환경감시단과 함께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분리배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독려하는 등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행군 뒤 라벨을 제거하고, 압축해 뚜껑을 달아 분리수거장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기존에 설치된 재활용 분리수거함 중 1개를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수거함으로 전환하거나 별도의 수거함을 마련해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해야 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은 전북현대모터스의 홈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27일 열리는 2021년 K리그1 챔피언스 개막전을 시작으로 시즌 개막전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공단은 월드컵경기장을 찾는 프로축구 팬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잔디 그라운드 등 시설점검을 비롯해 주경기장 VIP실, 선수대기실, 관람석 대청소 등 환경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경기장 내외부, 각 출입구, 선수대기실, 화장실 등에 대한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전주시보건소와 방역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기 당일 월드컵경기장 방역 소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람

객들을 대상으로 관람석 입장 시 2m 이상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는 게 공단의 방침이다.

2021시즌 K리그1 개막전은 27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날 전북현대에는 FC서울과 승부를 겨룬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입장객 수는 전체 관람석의 30%로 제한된다. 다만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전체 관람석 4만2152석의 25%인 1만여 석에 해당하는 인원만 수용하기로 했다.

백순기 이사장은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시설점검과 잔디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워드 코로나 시대에 선수들은 물론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걷고 싶은 명품길' 만든다

전주시, 한옥마을 주변 도보길 중심 걷기 전문가·마니아와 탐방

전주시가 걷기 마니아 등과 함께 한옥마을부터 남고산성, 초록바위에 연결되는 도보길을 걷고 싶은 명품길로 조성한다.

시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걷기 전문가 및 마니아 15명씩 함께 걷고 싶은 길 코스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탐방은 걷고 싶은 길이 시민과 여행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 잠재성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명품길로 도약시킬 수 있는 보완점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전주를 체류형 명품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로 한옥마을 주변 도보길을 중심으로 이번엔 회당 4명으로 팀을 꾸려 탐방에 나섰다. 탐방 코스는 한옥마을부터 송암산, 남고산성, 보광재, 흑석골, 초록바위에 이르는 약 19.8km에 이

르는 길로 기획됐다. 지난 21일 탐방에는 공주 순례길 탐방 등 3명이 참여해 콘텐츠 개발 방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향후 시는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옥마을 주변의 뛰어난 자연환경과 다양한 유·무형 문화자산을 연계한 대표적인 도보길로 조성해 시민과 여행객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탐방꿈꾸는 길로 조성한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와 마니아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옥마을 주변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 문화, 인문 자원들을 엮어 전주의 대표적인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